

한인여성들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 '헌법소원, 법개정 촉구'

지난 22일 버지니아주 아난테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엘리어나 민지 리(23·여) 씨의 어머니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국에 산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우리 애가 복수국적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공군에 들어가려면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누구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딸의 앞 길을 막았다는 듯한 자책이 묻어났다.

리 씨는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했고,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지난해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군(사병)에 지원했다.

그는 선발시험 합격을 눈앞에 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신은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리 씨는 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13년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부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이 18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공군 입대를 포기했다.

리 씨와 가족들은 2010년 한국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것을 몰랐다. 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선천적 복수국적인 것을 확인하려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직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고 말했다.

결국 리 씨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OC한인회, 아시안 증오 범죄 대책 세미나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를 7월 1일(목)과 7월 8일(목)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두 차례의 세미나에는 샤론 백 가든그로브 경찰서 한인 행정관이 강사로 나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OC한인회는 최근 아시안 증오 범죄 예방 요령과 증오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의 행



▲OC한인회가 제작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 지침서'

동 요령, 신고 방법 등을 자세하게 담은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위협을 느꼈을 때 긴급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호루라기'와 '페이퍼 스프레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편 OC한인회는 지난 21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와 차세대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친목을 다졌다.

LA카운티, 퇴거 보호 조치 연장



▲LA카운티에 있는 노숙자 거주 텐트촌. 사진=shutterstock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2일, 6월 30일로 만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윌라 쿠엘(3지구) 수퍼바이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퇴거 보호 조치 기간 연장은 LA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쿠엘 수퍼바이저는 “강제 퇴거 금지 조례 시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더 안전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의 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관련해 건물주들은 자신들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연장을 반대했지만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많은 주민들이 강제 퇴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강제 퇴거 금지 조례안 대상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무과실 퇴거, 무단 거주 퇴거 등이 포함된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CA주 또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빠른 환불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